

보건관리			번호: J - A - 11					
제 목	국문	양호교사의 인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구강보건관리 실태						
	영문	Present Status of Oral Health Care Based on the Recognitions of Health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 in Busa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전진호 <sup>1)</sup> , 류원향 <sup>2)</sup> , 양인혜 <sup>3)</sup> , 손혜숙 <sup>1)</sup> , 이종태 <sup>1)</sup> , 김성준 <sup>1)</sup> 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김해이조은치과, 3) 부산 연지초등학교						
	영문	Jin Ho Chun <sup>1)</sup> , Won Hyang Rhu <sup>2)</sup> , In-Hye Yang <sup>3)</sup> , Hae Sook Sohn <sup>1)</sup> , Jong Tae Lee <sup>1)</sup> , Sung Jun Kim <sup>1)</sup>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2) Gimhea Ijoeun Dental Clinic, 3) Busan Yeonji Elementary School						
분야	보건관리	발표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목적</p> <p>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관리는 국민 구강보건사업에서 최우선 대상이다. 이 연구는 학생의 건강 관리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의 인식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구강보건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교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p>								
<p>2. 연구 방법</p> <p>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양호교사 181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호교사의 학교구강보건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행태, 현재의 구강보건관리실태와 구강보건교육 현황을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은 PC SAS(ver 8.1)를 이용하여 각 특성의 응답 분포와 백분율을 구하고, 대상자의 연령과 학교 규모, 구강보건 관심도 등에 따른 특성과, 이를 특성별 우식유병자율을 2-검정, t-검정, ANOVA 등으로 비교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세(24세-58세)였으며, 대상 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32학급(5학급-58학급)이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시기적 중요성에 동의한 데 반해 관심도는 낮았다. 구강보건지식 습득 경로는 PC통신(26%), 관련학회(25%), TV·라디오(21%) 등이 많았으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이용이 많았다(<math>p=0.012</math>). 학교 치과의는 96%에서 정하고 있었으며 58%에서 자체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강보건사업 시범학교에 참여할 용의는 72%에서 없었다. 대상학교 학생의 평균 우식유병자율은 64%(20%-96%)로 높았다. 대상 학교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종류는 2종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은 대부분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건치아동 선발대회였다. 자체 구강보건교육 실시 경험은 92%에서 있었으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 적은 대부분에서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교사자신이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회수는 54%에서 1회 였으나</p>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42%나 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답하였으며 받은 경우의 75%가 교육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구강보건교육자료는 92%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로 보건실에 비치하고 있었다. 보건교육자료의 종류는 평균 3.2종으로 내용은 VTR테이프(79%), 치아모형(64%), CD(55%), 책자·팜플렛(50%) 등이 많았고 양호교사가 선호하는 교육자료도 VTR테이프(43%)와 동영상자료(41%)가 많았다. 교육자료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곳으로는 치과의사협회(36%), 전문학회(35%)가 많았으나 치과의원(6%)은 매우 적었다. 학교구강보건교육의 적당한 빈도는 1년 2회(46%)가 가장 많았으며, 구강보건 교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잇솔질 방법(53%)이 많았던 반면,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의의와 효과(13%)는 적었다.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p=0.016$ ), 교사의 교육 경험이 많았다 ( $p=0.044$ ). 학교 규모가 클수록 학생 우식유병률 자료를 보유한 율이 높았던( $p=0.040$ ) 반면 시범학교에 대한 참여 용의는 낮았다( $p=0.002$ ). 학생교육을 더 자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교사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 $p=0.043$ )와 교사가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p=0.083$ ) 많았으나 교육 경험 여부와는 무관하였다.

#### 4. 고찰

현행 학교구강보건관리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호교사의 관심도와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정기적인 구강검진 실시와 함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